

상표 출원 중 가장 많은 것은 ‘먹거리 상표’

특허청, 최근 5년간 분석 결과 전체의 19% 차지

트허청에 출원되는 상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수축산물, 음료 등 ‘먹거리’ 관련 상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상품과 서비스

사업의 분야별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출원 건수 중 먹거리와 관련된 출원건수가 연평균 21,545 건으로 상표에서 가장 많은 1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류·신발·가방 14%, 의약품·의료기구 10%, 전자통신·가전제품 9%, 화장품·세제 8% 순이었다.

사랑한다면 지켜주세요! 반려(伴侶)동물 보호관련 특허 동향

반려 동물 보호관련 특허출원 증가

2008년 1월 27일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는 지역

에서 소유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마이크로칩으로 부착(시술) 혹은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통해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 등 안전 조치를 취하고, 배설물

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특허청은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특허가 2005년 51건, 2006년 49건이었으나 2007년에 들어서면서 88건으로 전년에 비하여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6월까지 40건의 특허가 출원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도 여성의 역할 증가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참여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재산권 출원분야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개인 출원 중 여성 출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2007년의 경우

16.58%로서 2003년의 12.83% 대비 3.7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여성 출원 비율만큼 남성 출원 비율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2007년 여성 출원을 산업재산권 분야별로 살펴보면 개인 출원 전체 현황 중 상표 출원이 8.09%로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특허와 디자인 출원 비율은 각각 3.09%, 4.08%로서 2003년도 각각의 출원 비율보다 2배 정도 증가하여 특허나 디자인에 있어서도 여성의 섬세한 미적 감각이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고객감동기관으로 거듭나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지난 8월 13일로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지식재산센터 4, 5층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는 '98년 8월 특허청이 정부대전청사로 이전하면서 수도권 특허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소했다.

지난 10년 동안 연간 10만 명 총 100만 명 이상의 서울 및 수도권 지역 특허 고객이 방문하여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했다.

방문고객 안내와 414만여 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고객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처음 방문하는 고객이 쉽고 편하게 특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능한 경력심사관(4명)으로 구성된 고객상담실을 운영하여 출원부터 등록, 심판까지 궁금한 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 오후시간에는 영세 자영업자

및 고객을 위한 무료변리사 상담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하여 수도권 고객들이 편리하게 각종 기술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장애인과 고령인의 심판업무 편의를 위한 구술심리 특허심판정도 운영하고 있다.

김점순 소장은 “수도권의 특허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특허심사 서비스 호주 수출길 열려

제9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에서 양국 합의

빠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 특허심사 서비스가 호주로 수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지난 8월 1일(현지 시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9차 한·호주 특허청장 회담에서 고정식 청장과 필립 누난(Philip Noonan) 호주 특허

청장이 양 기관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상호 지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우리나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국가(지정 연도):

- 필리핀('02), 베트남('02), 인도네시아('03), 몽골('04), 싱가포르('04), 뉴질랜드('05), 미국('05), 말레이시아('06), 호주('08, 8)

제공 특허청